

DJ '서신외교'

오바마에 축하 편지 "우정과 평화" 답장 클린턴 부부도 선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서신을 주고 받는 등 왕성한 서신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 즈음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축하 서신을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답신을 통해 "우정과 평화의 정신 하에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국이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내외도 최근 김 전 대통령에게 트루다 여성들이 만든 전통 공예품 '평화의 바구니'를 보내며 'CGI(Clinton Global Initiative)'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 최 비서관이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20일 한국 방문 후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0여 분간 감쪽 대화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직권 상정” “필사 저지” 여야 일촉즉발

27일 본회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갈등 참여 미디어법 싸고 고성도

2월 임시국회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까지 상임위별로 쟁점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의견 절충을 위해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했지만 의견차만 확인, 여야간 2차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26일까지 상임위별 심의를 마무리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시간표를 마련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실상 시간이

오늘을 포함해 사흘밖에 없다"며 "이제 상임위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결론에 도달할 지점이며,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목요일(26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9년 지방의회의원 연수에서 "직권상정은 다수당의 정당한 권리인 법안처리

가 소수당에 의해서 막혀 있을 때 불가피한 조치"라며 "직권상정은 국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에 민주당의 저지 의지도 결연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1월6일 합의를 깨는 망동"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깨고 일방통행을 획책하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밤 정 대표가 주재하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1월6일 합의문 정신 존중 ▲분방위의 미디어

법 상정 저지 ▲18개 민생법안의 중점 처리 등 세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나아가 24일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MB의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여야 문방위 간 사간 합의 도출 실패시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25일째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 문방위에서는 미디어 관련법 상정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상임위에 상정한 뒤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견을 먼저 수렴하자"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당 정세균(맨 왼쪽부터), 조영택, 전병헌,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23일 국회 문방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관련 법안 처리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지지도 30%대... 정치·경제 낮아

취임 1주년 여론조사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직후 50~60%대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지만 지난해 이른바 '쇠고기 파동' 이후 수개월간 10%대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21일 실시해 23일 보도한 여론조사(이와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5%였으며,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국정지지도와 비교할 경우, 김대중(55.9%), 김영삼(55.0%) 전 대통령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지만 노무현(25.1%), 노태우(28.4%)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 것이다.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가 실시한 같은 날 여론조사(이하 성인남녀 1천명 대상)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2.7%였다. 부정 평가는 62.2%나 됐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의 21일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4.1%, 국민일보와 동서리서치의 20

일 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6%로 각각 나타나는데 대부분 조사의 30%대 초·중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당선됐지만 정작 경제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 결과, 외교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4%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28.3%)을 크게 앞질렀으나 경제분야는 응답자의 22.7%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21.7%)과 정치안정(21.6%) 분야에 대해 지지율도 전체 국정지지도에 못 미쳤다.

일동조사기 tuim@kwangju.co.kr

정두언 "이재오 귀국 후 정치 일선 안 나설 것"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과 관련, "당장 정치 일선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전 최고위원이 조용히 책을 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밤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이 전 최고위원과 만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과 독대"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친이' (친 이명박)계의 잇단 회동에 대해 "그동안 뜻

을 모으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집결 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뜻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친박' (친 박근혜)계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집결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언론이 너무 대결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번 더 하겠다고 했고 대과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불출마 입장을 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민주 '삼세번 공천' 눈총 두번 사고친 선거구에 또 후보 내기로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잇단 비위로 같은 지역구에서 세번째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도, 또 다시 후보를 내겠다고 나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3일 광주 서구선거관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 김복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29일 광주 서구 '다' 선거구(화정3·4동, 풍암동)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은 후보 공천을 위해 지난 14일과 20일 2차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5명의 신청자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서구 선거관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서구의회 다 선거구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나정숙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2007년3월30일)한데 이어 2007년 4월25일 보궐선거를 통해 진출한 민주당 김복일 의원마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2008년10월9일), 오는 4월29일 세번째 선거를 치르게 됐다. 두차례 보궐선거로 선거 비용으로만 4억원 가량을 날리게 됐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민주당에 대해 '책임정당 포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사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잘못해 두차례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도 석고대죄는 커녕 또다시 후보를 내겠다고 제정신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차후에는 보궐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이나 의원이 소요된 선거비용을 부담하거나 교육위원처럼 차점자가 승계하는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 조선대서 명예 정치학박사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부산 중구 동구)이 조선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자연과학대학 4층 대강당에서 부산 출신으로 영·호남 화합에 공헌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명예 정치학박사를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차기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4선의 정 의원은 부산고과 부산대 의대를 졸업했다. 정 의원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힘썼으며 현재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장을 맡아 청와대·정부·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전남도당 여성위원장 박해숙 의원

○박해숙(여·56·사천) 전남도의원(비례)이 지난 21일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 위원장은 고흥 출신으로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도당 여성부위원장·여성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손장조(77) 전 신안군수를 고문으로, 김동준(56) 광양읍발전협의회회장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 부위원장에게 황광연(65) 완도재향군인회장, 이진만 전 진도군 기획실장을 신규 임명하고, 황병순(66·보성)·신윤식(64·고흥) 전남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당직 변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선박주식회사 (제21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고혈압치료제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혈압강하제 연구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질환: 만 18세~70세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임상부 또는 임신계획중인 여성 제외. 연구기관: 전남대학교병원. 연구참여기간: 총 5~6회 병원 방문, 총 10주~11주 참여. 참여자 혜택: 임상시험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진찰비, 검사비, 임상약이 무료 제공되며, 소정의 교통비와 전자 혈압계 제공. 문의: 상담원 [080-765-2332, 수신자 부담]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09. 3. 6(금) 09:10, 오후반 2009. 3. 6(금) 13:40, 토요일 오전반 2009. 3. 7(토) 09:10, 오후반 2009. 3. 7(토) 13:40. 모집기간: 2009. 1. 29(목)~2009. 3. 7(토), 2009. 3. 6(금)~2009. 8. 29(토) (6개월 / 24주). 수강료: ₩298,0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950-3584, 3585, H·P: 011-614-4160. 광주은행: 148-107-307803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530-3873~5, H·P: 016-611-1171.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